

광양시, '잇유 청춘 플로깅' 참여 청년단체 모집

광양시는 지역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잇유 靑春 플로깅(With You 청춘 Plogging)'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 청년 소모임, 청년을 모집한다.

'잇유 청춘 플로깅' 사업은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시향토청년회가 주관해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광양의 볼거리 광양구경(光陽九景) 플로깅 9회, 관광명소 플로깅 4회, 문화재 플로깅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플로깅 외 '선사인 플로깅 토크콘서트'와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하며, SNS 등 각종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쓰레기 문제 인식을 확산해 단순 쓰레기 줍기 사업이 아닌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인식 전환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에는 15회 플로깅 참여자 서명부에 기록된 소속단체, 소모임, 성명을 토대로 참여 횟수를 집계하고 최우수상 1단체, 우수상 2

단체, 장려상 2단체, 최우수 플로거(Plogger) 1명을 시상해 청년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환경보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플로깅 참여를 원하는 청년단체, 청년 소모임, 청년은 QR코드, 광양시향토청년회 사무국으로 신청해야 하며 참여자에게는 1365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된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플로깅 사업을 통해 청년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분리배출로 쾌적

한 광양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plocka upp(줍다)와 walking(걷다)의 합성어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농특산물 상생장터 성료

다양한 품목 구성·이벤트로 인지도 ↑

곡성군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곡성군 농특산물 상생장터를 운영해 약 3천 9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번 상생장터는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곡성군이 마련했다. 우수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곡성군의 9농가(단체)가 참여했다. 참여 농가들은 토란 픽미집, 곡성멜론, 삼기 흑찰옥수수, 유기농 백세미 등 45여개 품목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시식 및 판촉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특히 곡성 와사비 아이스크림 홍보 및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곡성군은 고소득 원에 특용 작물로 와사비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유기농 백세미 증정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곡성군 농산물 알리기에 힘을 쏟았다.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 행사장을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관으로 구성한 것은 전라남도에서는 곡성군이 처음이다. 백화점 고객들에게 곡성군을 알리고, 판매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곡성군의 열의가 반영된 것이다.

곡성군은 이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에 이어 다가올 추석과 김장철에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곡성군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농정과 직거래 장터 담당자는 "지역 농가가 더욱 튼튼한 소득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곡성군 주관 기획전, 특별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와도 연계해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선섭 기자

구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구례군은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8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은 구례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 3종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불가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이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 1대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8~12일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은 방문,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심선섭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월 5일까지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읍면동 마을계획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주민총회는 지역의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투표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이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24개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월 5일까지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읍면동 마을계획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자치회는 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에 구성된 주민자치 대표조직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찾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마을 일을 결정하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특히, 주민총회는 지역의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투표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이다. 주민총회 추진 일정과 진행방식을 결정하는 기획 단계부터,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도한다.

지난 3월부터 워크숍을 통해 마을사업안을 구상했다.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제를 찾기 위해 '동네 한바퀴, 수다회'로 마을 곳곳을 다니며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발굴된 사업안은 온라인 투표와 찾아가는 현장투표로 마을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친다. 그다음 최종적으로 주민총회에서 주민의 투표로 실행 여부가 결정돼 내년도 읍면동 사업으로 실행된다.

/이유빈 기자

여수 낭도서 '남도바닷길 캠핑대전' 개최

대동놀이·공연·별자리 해설·포트락 파티 등 풍성

여수시(시장 정기명) 생태관광지 낭도에서 '남도바닷길 캠핑대전'이 열린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6권역 프로그램으로 남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8월부터 11월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보성에서 각각 3차례씩 총 12회 개최된다.

여수 낭도캠핑장에서는 8월 19일과 26일, 9월 2일에 개최되며, 모집 인원은 회차 별 36팀이다.

참가비는 13만원으로, 캠핑장 1면과 지역특산물(쌀, 돼지고기, 수산물)이 제공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당일 저녁 대동놀이, 문화공연, 장기자랑, 별자

리해설, 서로 음식을 나눠먹는 포트락 파티, 웰니스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남도바닷길 캠핑대전 홈페이지(www.namdo-ocean.com)에서 선착순으로 실시간 예약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캠핑대전 사업추진단(061-921-5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핑대전은 캠핑장에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캠핑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과 캠핑객이 공생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캠핑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고 나누며 아름다운 남도바닷길을 만끽하는 특별한 체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